

UBF General Director farewell address by P. Moses Yoon

He said to them, "When you pray, say: 'Father,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Lk 11:2)

I was appointed as the 5th General Director of our community exactly 4 years ago. During this time, I have served this office only through God's one-sided mercy and grace. It was an amazing grace and privilege for me to serve our UBF community as the General Director, receiving heartfelt love and prayers from countless co-workers around the world.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God and to all of you.

Above all, I would like to thank Missionary Mother Barry, Grace A Lee, and Dr. John Jun for their deep love and prayers. I thank my wife Sarah Yoon for her prayers, and those who closely supported me, P. Ron Ward, M. David Kim, Dr. Augustine Sohn and the NA Elders, P. Teddy, P. Mark, Dr. Suh, Dr. Ezra Cho, M. Helen, and M. Joshua Min. If I mention each person individually, there would be no end to this address.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ll those who have served me by bearing with my shortcomings and weaknesses.

For two and a half of the past four years, there have been restrictions on traveling and gatherings due to the Covid pandemic. However, I am thankful that God gave us his grace to serve God's work through online ministries. The rapidly changing world makes us study and pray a lot about how to serve the campus discipleship ministry more effectively. For this, we must pray. Jesus prayed often. Before important tasks such as raising the twelve apostles, he devoted himself to prayer. Jesus was humble, acknowledging that he could not overcome all temptations through his own strength and relied only on God the Father. When Jesus was on this earth, he always called God "Father," like a beloved son calls his father "Daddy." Jesus now tells his disciples to call God "Father" in the same way.

Jesus teaches us what to pray first as children of God. It is to pray, "Hallowed be your name, and your kingdom come." Some people live for money and some live for worldly success. But the purpose of our lives as children of God is for the kingdom of God to come to this earth; it is to see his name hallowed as King. The glory of God is revealed through our words and lives, and the kingdom of God comes when we learn and teach the Word of God. I am deeply grateful for God's grace in saving us and calling us as Bible teachers serving campus students in this generation. It is our mission and purpose of life to be grateful for this grace and to expand his kingdom by preaching the word to the whole world for his kingdom and glory. As the late Dr. Samuel Lee, the founder of our community, prayed, may we continue to serve as a kingdom of priests and holy nation.

I would especially like to thank P. Ron Ward for working with me wholeheartedly as the Vice GD during my tenure. Now, as an emeritus General Director, I will support him as best I can and pray that our community will continue to grow into a community of truth and love. Let us continue to pray that our community will be used as a world mission community that sends 100,000 missionaries by 2041.

Once agai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ayers and love.

(2022.8.12 Moses Yoon)

세계대표 이임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누가복음 11:2)

저는 지금부터 4년 전 오늘 우리 모임의 제 5대 세계대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과 은혜로 이 직분을 섬겼습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의 대표로 섬기며 전 세계 수많은 동역자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 지원을 받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부족한 이 종을 위한 사랑과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 선배 목자님들, 선교사님들, 동료, 또한 후배 동역자님들 모두에게 뜨거운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Mother Barry 선교사님과 Grace A Lee, 전요한 박사님의 깊은 사랑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아내 Sarah Yoon 선교사님의 기도와, 또한 저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로 온 마음으로 동역해 주신 P. Ron Ward, M. David Kim, Dr. Augustine Sohn 및 NA Elders, P. Teddy, P. Mark, Dr. Suh, Dr. Ezra Cho, M. Helen, M. Joshua Min 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거명을 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저의 많은 허물과 약점을 감당해주시며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임기 4년 중에 2년 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임과 이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온라인 사역을 통해 꾸준히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작금의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캠퍼스 제자 양성 역사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열두 사도를 세우시는 등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욱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자신의 힘으로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듯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그와 같이 '아버지'로 부르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기도 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이 시대에 캠퍼스 학생들을 섬기는 성경선생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를 늘 감사하며 오직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함으로 그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받은바 사명이요 인생 목적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임의 설립자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귀히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4년간 P. Ron Ward 목사님이 부세계대표로 저를 온 마음을 다해 동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전임 대표로서 그를 힘이 닿는 대로 잘 동역하며 우리 모임이 계속하여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임이 2041년까지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공동체로 쓰임 받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8.12 윤모세)